

2007 9 월 호 제390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9 월호

발 행 일 : 2007. 9. 20

등 록 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 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연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 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 A 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 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 홍 정 옥

비매품

주부교실

2007
통권 제390호 9

생각해봅시다	4	국어사전 갖고 계십니까 / 노재현
가격조사	6	추석 제수용품 구입가, 작년에 비해 5.1% 올라
실태조사	8	청소년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정보	11	'상품권 이용'에 어려움이 있나요?
고발사례	12	소비자의 소리 / 곽정자
알아봅시다	14	9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소비자경보	16	창호(새시) 계약 전 꼼꼼히 따져보세요
소비자뉴스	18	보험료,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해져
식품뉴스	20	전자렌지용 팝콘, WHO 트랜스지방 권장량 6배 초과
건강뉴스	22	하루 5시간 이하 자는 여성, 고혈압 위험 2배
쿠폰	24	두 얼굴 / 김지연
이달의 요리	26	남은 명절 음식으로 만든 별미 요리
음식이야기	28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사과'는 건강지킴이!
창업정보	30	프랜차이즈 창업,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육아정보	32	분유, 좀 더 위생적으로 먹이는 6가지 노하우
환경정보	34	생활 속 '라돈'의 위험성 줄이세요
금융정보	35	'후불제'의 함정은?
세금절약가이드	36	매년 이자를 나눠 받아도 절세가 돼요!
문학산책	37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여행정보	38	'호반(湖畔)에 비친 가을'을 찾아서
지부소식	49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50	'제14회 주부대학동문회 운동회' 및 '제70기 주부대학 개강'

〈표지사진 : '광주광역시지부 지도자대회' (광주광역시지부, 07. 9. 1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캠페인' (울산광역시부, 07. 8. 16)〉



국어사전 갖고 계십니까

노재현 /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국

언론사들은 매년 수습기자 공개 채용 시험을 치른다. 내가 근무하는 신문사도 마찬가지다. 종이신문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신문기자 지망생이 넘쳐난다. 당연히 입사시험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 대학가에서는 ‘언론고시’라는 말이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고 한다.

신문이라는 매체는 방송에 비해 주지적(主知的)이라는 특징이 있다(방송은 정서에 호소하는, 주장적인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신문기자를 지망하는 사람이라면 정확한 표현력에 바탕을 둔 논리적인 글쓰기 실력이 필수다.

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속사 수습기자 공개채시험의 출제·채점위원장을 맡았다. 중앙일보의 필기시험은 작문과 기사작성의 두 과목으로 나뉘어 있다. 작문은 일반적인 글쓰기 능력을, 기사작성은 신문기사 쓰는 능력을 테스트한다. 타 전공 이수자는 물론, 언론학이나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대학생·졸업생이라도 그들의 기사작성 실무능력은 사실 20년 안팎의 세월을 기자로 근무한 평가위원들이 보기에는 병아리 수준이다(기사작성 실무능력의 99%는 신문사 입사 이후 발로 뛰며 처음부터 새로 익히게 된다고 보면 맞다). 그러므로 기사작성 시험의 답안 채점은 기본적인 소양이나 앞으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게 된다. 오히려 작문시험 채점

에서 더 변별력이 생기는 느낌이다.

문제는, 작문이든 기사작성이든 대학생에 걸맞은 최소한의 어휘력·표현력조차 의심되는 답안이 많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책을 너무 안 읽어서인지, ‘외계어’가 남발되는 인터넷 채팅이나 댓글에 익숙해서인지, 중·고교 때 국어선생님이 게을렀는지, 여하튼 대학 졸업을 앞두었거나 이미 졸업한 학생의 문장이라고 보기 힘든 것들이 많았다. 신문사 입사 지망생 대부분이 명문대나 그에 버금가는 대학 출신인데도 그렇다.

올해 채점 때 눈에 띈 사례를 몇 개 들어보겠다.

‘저는 저렴한 학점과 토익성적에도 불구하고...’

(학점이 저렴하다는 것은 너무 부적절한 표현이다)

‘모두 열광의 도가니탕에 빠져들었다.’(도가니탕을 꽤 좋아하는 학생인가보다. ‘열광의 도가니’가 적절하다)

‘반신불구’ (‘반신불수’가 맞는데 잘못 썼다. 아마 한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신세대이기 때문인 듯)

‘고분분투’ (‘고군분투’가 맞는데...)

‘부지부식간에’ (‘부지불식’이 맞다. 이 역시 한자실력 부족 탓인 듯)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지만’ (‘재천’이라야 옳다)

‘유래없는 참사가 발생했다.’(사물의 기원을 의미하는 유래가 아니라 ‘비슷한 사례’를 의미하는 ‘유례’라고 써야 맞다)

위의 예를 보면 ‘저렴한’이나 ‘도가니탕’ 같은 잘못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한자어나 고사성어를 잘못 이해해 생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의 한자 실력이 형편없다는 증거다. 문제는 한자를 모르고는 신문사·방송사는 물론, 다른 일반 직장에도 들어가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왜? 무엇보다도 국어 어휘의 70%가 한자어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학생의 답안에는 ‘낙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은 전무후무하다’는 문장이 있었다. ‘전무하다’로 충분할 것을 ‘후무’까지 넣은 바람에 틀린 문장이 돼버렸다.

정확한 어휘력을 갖추지 못하면 기사·문서 작성은 물론 동료·상사·거래처와의 대화에서도 올바르게 품위 있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다. 직장인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어휘력 다음은 정확한 문장력이다. 작년의 경우, 답안지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 신청이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슬픈 사실은 수중도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공상소설 속 바다처럼 바다는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위의 문장은 앞부분을 ‘인터넷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거나...’로 해야 자연스럽다. 아래 문장은 주어(슬픈 사실)와 술어(아름답지 않을 것이다)가 일치하지 않는 탓에 잘못된 문장이 돼버렸다.

사실 대학생 탓만 할 일이 아니다. 프로라고 자부하는 중견 기자들도 이런 실수를 곧잘 저지른다.

얼마 전 한 중앙일간지가 1면에 그것도 큰 제목으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전략적 비난 공세가 금도를 넘었다’는 내용이었다. ‘금도를 넘었다’는 표현은 기자로서는 치명적인 실수이자 무식의 폭로였다. ‘금도(襟度)’는 정확히 말해 ‘남을 용납할 만한 도량’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프로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과 글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갈고 닦아야 하나보다. 요즘 방송기자들이 자주 틀리는 표현으로 ‘OO명이 부상을 당했다’도 있다. 부상(負傷)이란 단어 자체가 ‘몸에 상처를 입음’이란 수동태의 의미이므로 ‘부상하다’로 표현해야 맞다.

난데없는 국어 강의가 돼버렸는데, 사실 필자는 학자도 아니고 국어선생님도 아니다(옛날에 잠깐 국어교사였던 적은 있다). 다만, 글 쓰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국어가 더럽혀지는 일부 세태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부모님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마련해 줄 것으로 국어사전을 꼽는다.

영어사전·중국어사전은 갖추면서 국어사전은 의외로 등한시하는 가정이 꽤 많다. 아주 두꺼운 것과 포켓용 등 국어사전 두 권을 비치해 놓고 아이들이 궁금해 하거나 틀린 말을 할 때 혼자 힘으로 찾아보도록 해주자. 요즘엔 국어사전 기능이 포함된 전자사전도 많으니까 “영어 말고 국어도 모를 때마다 사전은 꼭 찾아라”고 가르치자. 그게 국어능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그 다음은 역시 많은 독서, 그리고 일기쓰기 같은 글쓰기 연습이다. 어릴 때부터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키워주어야 나중에 입사시험 때 필자가 예로 든 잘못된 표현들을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 ■

추석 제수용품 구입가, 작년에 비해 5.1% 올라

- 4인 가족기준 성수품 구입비용 172,921원 -

본회에서는 명절특수를 노리고 기본 성수품의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물가감시활동으로 지난 9월 11일~12일 서울 시내 25개구의 백화점(22곳), 할인매장(31곳), 일반슈퍼마켓(31곳), 재래시장(16곳) 등 총 100곳에서 추석 성수품 33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조사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 추석성수품 물가동향

- 작년 가격보다 5.1% 올라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추석성수품 3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추석이 지난해보다 10일가량 빨라지고, 잦은 비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시금치, 파, 꽃감, 과일류, 밤 등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주요 성수품 구입비용은 149,985원으로 작년(142,730원)에 비해 5.1% 오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금치, 파, 단감, 꽃감, 밤, 과일류 등의 가

<표1> 주요 품목별 상승률·하락률 비교표

오른 품목(%)		내린 품목(%)	
시금치	58.4	수입도라지	-9.0
파	47.2	한우산적용	-6.7
수입꽃감	47.1	한우국거리	-4.9
단감	30.8	돼지고기	-4.1
숙주	26.8	국산간혹두	-3.4

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들 품목이 가격 상승 주도품목으로 나타났으며, 한우(산적용, 국거리용),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나물류의 가격은 작년에 비해 하락<표1 참조>되어 안정세를 이루었다.

◆ 추석기본 차례상 비용(4인가족 기준)

-평균 비용 172,921원, 재래시장이 가장 저렴

4인 가족기준으로 26개 주요 성수품목 구입비용은 172,921원이었고, 이를 업체별로 비교해보면, 백화점이 218,907원, 할인매장이 167,683원, 슈퍼마켓 164,362원, 재래시장 130,116원의 순서였다.

가격측면에서만 본다면 재래시장에서의 구입가격이 백화점보다 88,791원(40.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도 단순한 가격 비교보다는

품질도 함께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추석성수품 업체별 평균가격 비교

- 재래시장에 가격 싸지만 수입산 품목 가장 많아

추석성수품 평균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업체별로 비교<표2 참조>해보면, 백화점은 4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평균가의 최고가를 차지하였고, 반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재래시장이 최저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수축산물을 비롯하여 밀가루, 청주, 두부 등 가공식품도 가격 경쟁 면에서 재래시장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질적 측면을 감안한다면 백화점은 과일류, 나물류, 야채류 등은 거의 국산만을 취급하고 있는 반면 재래시장에서는 수입산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표

시를 잘 살펴보고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 론

올 추석은 이상기후의 영향과 작년보다 빨라야채류, 꽃감, 밤 등의 가격이 상승세를 주도해 추석 제수용품 구입가격이 작년에 비해 5.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가격차이 비교를 보면 재래시장이 백화점보다 40.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산보다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단순 가격비교 보다는 상품을 질을 고려한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며 특히, 정부는 명절 물가상승과 함께 올해 선거 특수로 인한 물가상승이 맞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원산지를 위·변조하는 일이 없도록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애연 / 본회 소비자보호국 부장>

<표2> 업체별 평균가격 최고가와 최저가 비교

업 태	비싼 품목	싼 품목
백 화 점	햇쌀, 일반미, 국산 간 녹두, 배, 사과, 단감, 밤, 국산 꽃감, 토란, 숙주, 시금치, 파, 국산 도라지, 국산 고사리, 조기(수입산), 동태포, 북어포, 한우국거리, 한우산적용, 돼지고기, 계란, 송편, 밀가루, 두부, 청주, 약과, 산자(27개)	
할인매장	수입산 도라지, 수입산 고사리(2개)	밤(1개)
슈퍼마켓	국산 참조기(1개)	수입 간혹두, 대추, 계란(3개)
재래시장		햇쌀, 일반미, 국산 간 녹두, 배, 사과, 단감, 대추, 국산 꽃감, 수입꽃감, 토란, 숙주, 시금치, 파, 국산 도라지, 수입 도라지, 국산 고사리, 수입 고사리, 조기(수입산), 동태포, 북어포, 한우국거리, 한우산적용, 돼지고기, 송편, 밀가루, 두부, 청주, 약과, 산자(29개)



인터넷 쇼핑물 이용자 33.3% '좋으면 아무 때나 구입' 소비자피해엔 소극적으로 대처

- 대전 지역 중·고등학생 600명 대상 -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인터넷 쇼핑물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달라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쇼핑물을 이용한 상품 구매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 지부는 지난 7월 10일~25일 대전 지역내 중·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물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청소년 소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해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다음은 실태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품 구매 정도

- 응답자 66.7% '의류' 구매하고, '약관 및 계약내용' 확인하는 응답자 33.6% 불과

인터넷을 통해 주로 구입하는 물품의 종류를 복수응답으로 받은 결과를 보면 의류가 66.7%로 가장 많았고, 54.7%는 잡화(신발, 악세사리, 모자, 가방)였다.

인터넷 상품 구매 결정요인으로 32.6%가 '디자인' 이었고, 30.5%는 '가격', 28.2%는 '품질'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품을 구매할 경우 반품이나 교환 등에 대한 부분이 명시된 약관 및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고 있는 응답자는 33.6%

에 불과했다. 구매 가격은 '2만원~3만원 사이'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32.8%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내는 31%였다.

응답자의 33.3%는 '좋으면 아무 때나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 하고 있었고, 33.4%는 '한 달에 1번 이상' 이용하고 있었다<표1 참조>

<표1> 인터넷 쇼핑물 이용(구매) 주기

항 목	실수	백분율(%)
일주일에 1번 이상	7	1.2
한 달에 2~3번 정도	88	15.3
한 달에 1번 정도	104	18.1
좋으면 아무 때나 구입한다.	191	33.3
1년에 1~2차례 정도	121	21.1
기타	63	11.0
계	574	100

◆ 이용 쇼핑물의 종류 및 만족도

- 응답자 37.6% '저가 판매' 쇼핑물 이용하지만, 45.1%만이 '품질'에 만족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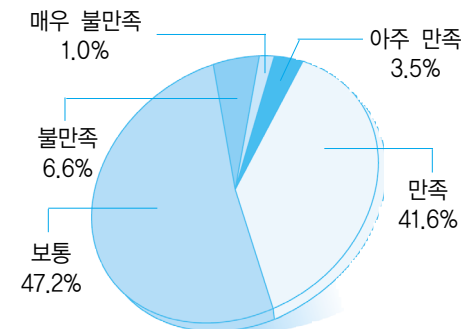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물은 G마켓(62.2%)과 옥션(43.2%) 등이었으며 해당 쇼핑물을 이용하는 이유로 37.6%가 다른 쇼핑물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 부모님 허락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3.7%만이 부모님께 반드시 허락을 받고 구매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하고 있는 쇼핑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51.9%만이 '인터넷 물품가격'에 대해 만족 또는 아주 만족한다'고 했다.

품질에 대한 만족도<표2 참조>에서는 응답자 45.1%만이 '만족하거나 아주 만족하다'고 했을 뿐 54.8%가 '보통이거나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하다'고 했다. 구입 후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물품으로 응답자 45.1%가 '의류'라고 했다.

<표2> 품질에 대한 만족도



◆ 쇼핑물 이용 관련 불만 사항

- 주로 '배달 지연 및 상품 정보 미흡'을 불만 사항으로 꼽고, 응답자 30%는 '절차 복잡해' 불만사항에 소극적으로 대처

인터넷 쇼핑물 이용에 대한 불만으로 응답자 58.1%가 '제품배달 지연'이라고 했고, 37.1%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불만이나 피해 경험 후 응답자 31.7%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49.8%는 '사업자에게 처리 요청하거나 소비자단체에 상담의뢰 또는 인터넷에 불만 내용을 올려놓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사항이 있어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표-3 참조>로 응답자 54%가 '귀찮아서', 30.0%는 '절차가 복잡해서'라고 답했고, 물품 구매 후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별도의 대응을 한 이유로 응답자 66.0%가 '당연히 환불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표3> 소비자불만 사항에 소극적 대처 이유

항 목	실수	백분율(%)
귀찮아서	54	54.0
구매상품 금액이 적어서	3	3.0
절차가 복잡해서	30	30.0
처리해 주지 않을 것 같아	7	7.0
기타	6	6.0
계	100	100

◆ 인터넷 쇼핑물 관련 미래 방안

- 응답자 73.9% '정부가 쇼핑물에 대한 규제 및 감시' 해주길 바라고 있어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물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83.8%가 '이용하거나 계속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응답자 11.5%가 '잘 모르겠다', 4.7%는 '이용하지 않거나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쇼핑물을 주위사람들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65.2%는 '주위사람들에게 추천은 하지만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응답자 29.8%는 '추천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반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5.1%에 불과했다.

또한 인터넷 쇼핑물의 바른 정착을 위해 정부에 제안할 건의 사항<표4 참조>으로는 응답자 38.7%가 '사업자 신고를 통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원했고, 35.2%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표4> 인터넷 쇼핑물의 바른 정착을 위한 대안

항 목	실수	백분율(%)
사업자 신고를 통한 철저한 지도 감독	222	38.7
소비자 피해 야기하는 업체에 대한 폐쇄조치	202	35.2
소비자 교육확대	60	10.5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수사조사	90	15.7
계	574	100

많이 일으키는 업체에 대한 폐쇄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 결 론

편리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구매 욕구와 맞아 떨어지면서 인터넷 쇼핑물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쇼핑물에 대한 신뢰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마켓플레이스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대금을 우송하고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어도 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인터넷 쇼핑은 미래 산업이며 경쟁력 있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이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발 빠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악의적으로 쇼핑물을 열고,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자들이 다시는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장치 마련을 하는 것은 물론, 다발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중적을 감추어야 조사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저렴한 이유 하나만으로 상품을 대거 구매하는 청소년들에게 경제 및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건강한 소비자상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대전광역시지부>

'상품권 이용'에 어려움이 있나요?

추석 명절 때문인지 뜻하지 않게 상품권을 선물 받게 되었다. 상품권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이용자들의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상품권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 둔다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상품권 잔액의 현금 환불을 거부한다면

표준 약관 제7조 및 피해보상규정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의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권 관련 특약이 없는 한, 사업자에게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수령 거절한다면

상품권 권면에 특정상품, 특정매장에서 상품권의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특정상품에 대하여 혹은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규정상 사업자는 당해 상품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거나 상품권 권면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당연히 상품권 사용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상품권 권면에 표시된 내용을 미리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상품권 유효 기간이 지났다면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사 채권 소멸시효기간(5년)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설정된 상품권의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보상규정에는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권면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사 채권 소멸시효기간(5년) 이내라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이용할 수 있다.

■ 영업양도 및 가맹점 등의 이유로 상품권 사용 거절한다면

소비자피해규정에 따르면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상품권 사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품권 사용 권한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 상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지체되는 때에는 발행자에게 현금 상환도 요구할 수 있다.

<내용참조: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소비자의 소리

◆ 학원수강료 환불 거절당해

내용 고교생 자녀를 둔 송석준(울산시 동구동)씨는 자녀를 위해 2007년 7월 8일 토익학원에 등록했다. 수강료가 월 12만원인데 2개월을 선납하면 1달분은 10만원에 할인해 준다하여 2개월분 22만원을 지불하였다.

자녀가 7월 한 달은 수강을 했으나 8월 1일부터는 학원에 가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 학원에 8월 7일 전화로 해지하고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민원 제기 하였다.

처리 8월 7일자로 해지 및 환불 요청을 했기 때문에 2007년 3월 23일부터 개정된 '학원 운영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법'의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제 및 해지시 개시일 이후 1/3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가능'함을 학원측에 알렸다. 더욱이 할인혜택에 대한 사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할인전 수강료 12만원으로 계산, 2/3의 해당액인 6만원을 합의 환불 처리해주었다.

◆ 콘도 회원권에 대한 보증금 환급 약속 기일 미뤄

내용 김원순(경기도 김포시)씨는 2000년 6월

19일 사조콘도 회원권 계약하고 7년 후인 2007년 6월 18일 보증금 6,990,000원 환급받기위해 계약 만기 10일 전에 해지 요청서를 회사가 원하는 양식대로 작성하여 보냈다.

8월말까지 입금을 해주기로 한 회사측의 약속과 달리 8월 29일 전화 통화에서는 내년 2008년 3월 말까지 입금을 미룬다고 하기에 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처리 민원 접수 즉시 사조콘도사 담당 대리와 통화해 민원 사실을 알리고 신속한 해결을 의뢰한 결과, 늦어도 9월 10일까지 전액 환급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후 보증금 전액이 차질 없이 은행 계좌로 입금처리 되었음을 확인했다.

◆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 제기

내용 이창수(경남 마산시)씨는 2007년 5월 AIG 상해 보험을 월 36,000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가입하였는데, 2007년 8월에 사고로 넘어져 얼굴에 골절상을 입게 되어 수술을 받았다.

보험회사에서는 간단한 레이저 수술이라고 보험금 15만원을 지급해주었으나 억울하여 항변하니 골절 진단을 받아야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험사에서 2개월 이상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됨을 근거로 통장 잔고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한 달치 보험료를 이체해 가지 않은 것 등 보험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고 상담 의뢰하였다.

처리 AIG 보험사측에 의뢰인의 불만내용을 알리니 치료 접수 서류가 관련 치료가 아니어서 치료비 15만원만 지급 하였다고 했다. 이후 진단 결과를 다시 받아 접수시켰더니 골절 진단으로 처리되어 실사비용 및 수술비 등 총계 75만원을 상해보험보장 내용대로 계산이 되어 이미 받은 보험료 15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60만원을 계좌입금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 차량 손상 배상액 적어

내용 윤삼중(대전시 서구)씨는 2007년 7월 8일 원내동 주유소에서 스포티지 차량에 주유하게 되었는데, 결제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이 경유 차량에 휘발유로 잘못 주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유소측 소장은 LIG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혼유로 인한 피해 발생시 100% 보상 처리해 줄 것을 약속했지만, LIG보험 손해사정인은 주유 중 소비자가 시동을 켜놓아 더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며 수리비의 70%만 배상해 주겠다고 한다.

처리 기본적으로 주유시 자동차 시동은 안전상의 이유로 껐도록 되어 있다. 이번 경우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발생한 엔진 훼손이 시동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손해를 확대시킨 점은 참작하더라도 손해를 발생케 한 책임이 아니므로 30%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함은 비합리적이라

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20%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수리비의 80%를 배상 받는 것으로 조정 처리하였다.

◆ 인터넷 통신사 변경시 위약금 대납 약속 불이행

내용 박성진(경북 김천시)씨는 LG 파워콤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7년 6월 타사(새로넷 통신)의 영업사원이 기존 통신사 해지시 위약금 대납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이용료 무료, 모뎀 사용료 무료라고 하여 새로넷 통신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는 미교부한 채 이용하였다.

계약 며칠 후 영업사원이 파워콤 중도해지 위약금 8만원의 대납 또는 현금 지급기로 한 것이 어렵게 되어 자사 인터넷 통신을 5개월 무료로 사용하라고 하며 기존 약속을 이행치 않았다.

한편, 5개월 무료라고 한 새로넷 인터넷 통신 7월 이용 요금인 16,050원 청구되어 영업사원에게 3차례 항의 전화하였으나 방문한다고 하면서 지연하고 있다. 이에 계약내용을 이행치 않아 해약을 요청하니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 제기하였다.

처리 인터넷 통신 이용자의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렵다 보니 사은품 제공 등 고객유치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관하고 있는 광고 전단지 등을 확인한 바 고객에게 제시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업체에서는 판매점에서 유치한 고객으로 영업 사원들의 고객 확보경쟁과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시 2개월 사용료에 대해 청구하지 않고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9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미리 예고했듯이 9월부터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뀐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및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알아본다.

◆ 청약가점제

- 같은 무주택자도 점수 높아야 당첨, 17일부터 가점제 아파트 등장

청약 1순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뽑은 종전 추첨방식과 달리 청약가점제는 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되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 제도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 면적 85㎡(25.7평)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고,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를 각각 절반씩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청약가점제는 같은 무주택자라도 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은 9월 1일이지만, 8월 말 모집공고한 아파트 분양이 접수를 마감하고

현행 전산시스템에 의해 추첨, 당첨자 발표 등의 일정이 진행됨을 감안하면, 가점제 적용물량의 최초 접수는 신규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는 9월 17일부터 시작된다.

◆ 분양가 상한제

- 분양가격 낮아졌지만, 전매 금지 기간 늘어나 이사 쉽지 않게 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를 받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제도로, 85㎡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20% 정도 떨어지고 85㎡ 초과 아파트도 실질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선이어서 청약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분양아파트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은 내년부터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인

하되는 혜택은 있지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지역이 생길 것에 대비해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고 복잡해져 주택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돼 이사 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마이너스 옵션제

- 입주자 취향대로 내부 마감재 설치 가능, 가격 부담 및 사후 서비스 문제 등 부작용 우려

분양원가의 공개와 더불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마이너스 옵션제’가 도입된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벽재·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 선택 사항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이러한 선택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규정하여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내부 마감재를 소비자 취향에 맞게 고르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옵션 품목들이 양변기·벽지·세면기 등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마감자재들이어서 개별 구매시 오히려 가격 부담을 물론 사후 서비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 인터넷 청약 확대

- 청약 과열 차단할 수 있지만, 미분양 주택 많은 곳은 오히려 주택경기 침체될 수 있어 그 동안 일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시

되어왔던 ‘인터넷 청약제도’를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일부 은행 창구에서 청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노인 등 인터넷 활용에 익숙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9월 17일부터 특별공급 대상자를 제외하고 일반청약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할 수 없고, 모델하우스 관람도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다.

한편, 청약 과열을 피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청약을 금지케 한 것에 대해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모델하우스 청약이 사라지면 오히려 주택경기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반값 아파트 공급

- 서민들 ‘내 집 마련’의 기회, 건설업체는 ‘미분양 사태’로 도산 위기 처할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가 올 10월 중에 경기도 안산이나 군포에서 시범 공급된다.

분양가상한제 및 청약가점제 시행과 ‘반값아파트’ 공급 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지만, 전국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업계는 미분양 증가 및 저조한 입주율이 중소 중견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참조 : 건설교통부>

창호(새시) 계약 전 꼼꼼히 따져보세요

창호(새시)는 창과 문의 총칭으로 건물의 조망성·채광·환기·방충 등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현재 아파트·연립 주택 등의 창호(새시) 설치 공사는 대부분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및 소비자 주의 사항을 알아보자.

■ 피해 현황

지난 200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창호 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 225건과 31개 사업자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공 후 하자 관련 내용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9건, 시공 지연 등 계약 미이행 피해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사례

■ 창호 공사 시공 후 누수 피해 가장 많아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46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호 누수로 마룻바닥 등에 손상이 발생한 하자가 31건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창호틀 변형·결로 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강모 씨는 2006년 2월 창호 시공 사업자와 창호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뒤 입주 시점에 확인해 보니 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입주 당일 해당 지역에 폭우가 내렸는데 창틀 내 실리콘 시공 불량으로 물이 새 거실 바닥이 일어나고 곰팡이가 생기는 하자가 발생했다.

■ 계약 해제 요구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계약 관련 피해 39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서(약관)상에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및 손해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 김모 씨는 창호 공사를 7백40만원에 계약 후 입주 무렵에 가격을 확인한 결과 다른 업체보다 과다하게 비싸 입주 3개월 전에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창호업자는 이미 자재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해약 시 계약금과 자재비 명목으로 2백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유형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사례 중 계약서가 첨부된 31개 사업자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담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다음 〈표 1〉과 같다.

■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후 다른 업체 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해약 요구시 해약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자재 주문·자재 절단 등의 사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시공 업체 간 가격·품질 등을 비교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시·도에 등록된 창호 시공 전문 업체를 이용한다

가격이나 사업자의 판촉에 의존해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 부실 공사나 추후 하자 발생시 만족스럽지 못한 애프터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므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m.net)·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등록된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한다.

■ 계약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다

사업자가 마련해 둔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공정한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다. 계약 체결 시 제품 사양·자재 사양·유리 두께·설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작성한다.

■ 해약 의사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해약을 원할 경우 계약서에 적힌 해약 가능한 기간·위약금 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해약을 통보할 때는 우체국의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한다. 〈내용출처 : 한국소비자원〉

〈표1〉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유형

불공정 약관 유형	불공정 약관 예시
소비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	계약은 '갑'의 발코니 새시 계약금 완납과 동시에 성립되며, 계약 체결 후 7일이 경과한 후 중도 해약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을'이 제품 제작을 시작한 이후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예정)액의 부담	자재 발주 후(준공 예정 6개월 전) 해약을 작업 진행 상황에 따른 손해를 감안하여 공사 금액의 50%를 위약금으로 하고, 현장 공사 시작 이후에는 공사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	본 계약서에 의한 법적 판결을 구할 시에는 '을'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원자재 가격 5% 이상 인상 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료,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해져

앞으로 보험 계약자들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고, 보험사가 포인트 이용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만큼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현행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부 보험료를 카드로 받고 있지만 중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첫 달의 보험료만 카드로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금감원은 초회 보험료는 카드로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보험료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 계약자들은 카드사가 이용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를 더 쌓을 수 있는 반면 보험사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주식 차례상, 수입산 점령해

근래 들어 계속되고 있는 수입 농수산물의 주식 차례상 점령' 현상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영도매시장(농협 포함) 수입 농산물 취급현황'과 수협 공판장 수입 수산물 취급현황' 자료를 재정리해 분석한 결과, 농협과 수협을 포함해 농수산물 도매거래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투자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운영하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수입 농수산물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입 국가별로는 올해 들어 중국산과 미국산 농수산물이 전체 수입 농수산물의 58.5%(중국산 31.2%, 미국산 27.3%)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산과 미국산 농산물

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수입 농수산물이 넘치는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식품과 밀수식품도 매년 증가해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 무료체험방 등 특별단속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6개 지방 식약청과 전국 시·군·구 합동으로 무료체험방,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노인, 여성주부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체험방에서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마치 암, 당뇨, 비만치료, 피부, 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비롯해 효도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 광고를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에 심의를 받지 않고 실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아울러 실시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소비자는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이용할 때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허가된 사용목적(효능·효과)은 무엇인지 제품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해 달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신간 10% 이내 할인 판매

온라인 서점뿐 아니라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신간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개정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해 내달 10월 20일부터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신간을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면서 할인판매가 가능한 신간의 범위를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모두 신간의 10% 할인판매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신간의 할인판매는 서점이 자체적으

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온·오프라인 서점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지만,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국제선 승객에 빈곤퇴치기금 1천 원 부과, 공항버스 요금 인상

국제 빈곤퇴치 기여금 조성과 관련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이달 9월 30일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내외국인)에게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세 미만의 어린이와 국외입양아, 환승객, 승무원 등은 기여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150억원 가량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빈곤 퇴치하는 세계적 과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10월 1일부터 공항버스 요금도 인상된다. 서울에서 김포공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천

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통 공항버스(일반 리무진) 요금이 현행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오르는 등 공항버스 요금이 평균 9.2% 인상된다.

“화장품만들기 키트” 유통은 불법, 소비자 피해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DIY(Do-It-Yourself) 형태의 ‘화장품만들기 키트’를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유통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화장품만들기 키트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이 발생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관련 법규해석 내용 전파 및 계도를 위한 단속활동에 치중하고 이후 위법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렌지용 팝콘, WHO 트랜스지방 권장량 6배 초과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대형극장에서 판매되는 7종의 팝콘과 시중 마트에서 판매되는 팝콘 12종(국내산 6종, 수입산 6종)을 대상으로 트랜스지방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자렌지용 팝콘'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고 있는 하루 섭취 함량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극장에서 판매되는 팝콘은 우려와 달리 100g당 0.0~0.1g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가공팝콘(국내산 5종, 수입산 1종)의 경우도 100g당 0.0~0.2g의 미량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렌지용 팝콘은 국내산(1종)의 경우 100g당 7.9g, 수입산 5종의 경우 100g당 무려 10.9~13.4g의 높은 트랜스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산 전자렌지용 팝콘의 경우 트랜스지방 함량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3배 이상 초과했

으며 수입산의 경우 무려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커피, 여성 대장암 예방 효과

일본 국립암센터의 이노우에 마나미 박사는 '국제암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최신호에 실린 연구논문에서 커피가 여성에게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40~69세의 남녀 9만6천명을 대상으로 12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 분석한 이번 연구 결과,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5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식사습관과 운동 등 다른 대장암 위험요인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성은 커피가 대장암 예방에 그리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마나미 박사는 커피가 어떻게 대장암을 막아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커피에 들어 있는 그 어떤 성분이 대장의 활동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설명했다.

식품첨가제, 어린이 과잉행동장애 유발 위험 있어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연구진은 3세와 8~9세 어린이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첨가제가 섞인 음료를 마신 어린이들이 과잉행동 증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의학저널 '랜싯' 최신호에 보고했다.

연구진은 조사대상 어린이에게 고농도의 첨가제가 섞인 음료,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것과 같은 보통 수준 첨가제가 함유된 음료, 첨가제가 들어 있지 않은 음료를 각각 마시게 한 결과, 고농도 첨가제가 섞인 음료를 마신 어린이들은 첨가제가 들어 있지 않은 음료를 마신 어린이들에 비해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 주었다.

연구를 이끈 짐 스티븐슨은 아이스크림과 사탕에 들어 있는 방부제인 안식향산나트륨과 함께

인공 착색제 혼합물이 과잉행동장애 증상의 악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연구를 의뢰한 식품기준청(FSA)은 심한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어린이들은 첨가제를 덜 섭취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 것에 반해, 전문가들은 심한 과잉행동장애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식품의 조절보다 약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굴 껍질, 암 예방에 효과 있어

영국 레스터 약대 연구팀이 굴의 암예방 효과를 연구한 결과 굴 껍질에 함유된 성분이 인체의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 껍질에 풍부한 '살베스트롤'이라는 성분은 암세포가 가진 효소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폐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굴 껍질을 먹으려면 유기농 굴을 골라 깨끗이 씻어 먹는 것을 권하고, 굴 껍질을 가늘게 잘라서 유자와 함께 차로 끓

여 먹으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

비타민C의 함유량이 파인애플의 4배, 사과 8배에 해당하는 굴은 비타민 덩어리로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중간 크기의 굴 5개면 밥 한공 열량과 같기 때문이다.

2009년 7월부터 아이스크림 제조 일 표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입법 예고한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아이스크림 제품에도 제조일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제조일 의무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아이스크림도 날개 포장된 제품을 포함해 모두 제조일자를 밝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식품의 날짜 정보 점자 표기,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구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비타민 D' 부족, 임신부작용 위험 높아

임신 초기 비타민 D 결핍이 자간전증(Preeclampsia)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간전증은 고혈압과 손발 부종 등 임신 중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조기유산 등 태아와 산모의 질환 및 사망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7만6000명이 자간전증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피츠버그대학 보드너 박사팀이 '내분비대사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 임신 초기 비타민 D 결핍이 자간전증을 일으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타민 D가 부족한 임신 초기 여성에서 자간전증 발병 위험이 5배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기 여성연구소(Magee-Womens Research Institute) 로버트 박사는 비타민 D가 약간만 감소해도 자간전증의 위험이 두 배로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하루 5시간 이하 자는 여성, 고혈압 위험 2배

수면부족이 남성보다 여성건강에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거 일부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고혈압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남녀의 성별에 특징적인 분석을 하진 못했었다.

최근 영국 워릭 대학 카푸치오 박사팀은 4199명의 남성과 1567명의 여성 총 6592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고, 연구결과 하루 5시간 이하 수면을 취한 여성들이 일반적인 권장 수면시간인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던 여성들에 비해 고혈압을 앓을 위험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성들의 경우는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것과 5시간 이하 수면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 하루 5시간 이하 수면을 취하는 여성

들은 더욱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팀은 수면부족이 비만이나 당뇨 등을 유발하는 전구예측인자로 중요하다는 증거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을 강조했다.

아동 허리둘레 1cm 증가, 혈압은 10% 높아져

미국내 비만인구의 급증과 연관 어린이들의 혈압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기학’ 저널에 모어하우스 의대(Morehouse School of Medicine) 연구팀이 발표한 소아 비만에 대한 연구 결과, 아이들의 허리둘레가 굵어지면 아이들의 혈압 상승을 가져와 심혈관 질환 발병을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1963~2002년 사이 8~17세 연령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결과 아이들의 허리둘레가 1cm 증가함에 따라 아이들의 혈압이 10%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미국내 소아청소년들의 고혈압 유병율은 1963년부터 1988~1994년 사이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을 전후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연구팀 또한 청소년의 고혈압 유병율이 1999~2002년 사이에는 3.7%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하고, 만일 고혈압 유병율에 있어서의 이 같은 트렌드가 역행되지 않으면 미국내 소아 청소년에 있어서 심혈관질환 문제가 새로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식·알레르기 응급환자는 ‘1399’로 전화

기획예산처는 5일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 천식·아토피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중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천식이나 아토피성 알레르기에 따른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도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갑작스러운 천식 또는 아토피성 알레르기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센터로 전화해도 전문적인 조치를 받기 어려웠지만, 내년부터는 천식·아토피 질환 전문 상담콜센터가 응급의료센터와 연계돼 운영된다.

이에 따라 천식 또는 아토피성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응급의료센터로 전화를 걸면 응급조치 상담을 받고 응급차량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번만 천식·아토피 질환 전문 상담콜센터와 전화 연결이 되면 이후 환자등록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중 천식·아토피 질환의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수칙이 각 병·의원에 보급된다. 천식·아토피 질환의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조기감시체계도 구축된다.

치매 예방하려면 엽산·비타민 B12 섭취해야

국내 연구진이 치매를 유발하

는 위험인자를 밝혀냈다.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과학센터와 고려대 의과대학 안산노인연구소가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안산에 사는 60~85세 노인 1215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해 이뤄진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짙으면 치매 전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에 걸릴 위험이 증가했고, 호모시스테인 양이 높을수록 혈장 엽산과 비타민 B12의 양은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엽산과 비타민 B12를 많이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번 연구 결과가 혈장 호모시스테인의 양을 줄이면 치매를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엽산은 시금치·아스파라거스 등에 많고, 비타민 B12는 굴과 소의 간 등에 많다.

편두통 있는 사람, 뇌졸중·심장병 걸릴 위험 높아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

간질,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의학전문지 브리티시 메디칼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편두통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4배 가량 높았다.

편두통이 생길 때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 뇌세포의 손상이 오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말했다.

미국 신경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성인 간질 환자의 20%가 편두통 때문이었다. 편두통 시 순간적으로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뇌세포에 손상이 온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하버드대 쿠르드 박사팀은 편두통 환자는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2%나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국내 의료진들은 한 달에 세 번 혹은 한 번에 사흘 이상 지속되는 편두통을 앓고 있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두 얼굴

그 처녀의 장점은 소박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데에 있다고 중매쟁이 강 여사는 내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말했다.

남들이 명문(名門)이라 말하는 대학을 나오고 그냥 괜찮은 회사의 타칭 엘리트 사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나이 서른다섯 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간 것은 순전히 여자들이 너무 극성스럽고 위선적이고 영악하여 무서워서라고 했더니, 강 여사는 지극히 다소곳하고 얌전한 처녀가 나타났으니 주말에 맞선을 보자고 강권했다.

그러자고 했다. 가족들의 어서 '장가 좀 가라'는 등쌀이 귀찮아서보다 독신으로 살 작정이 아니라면 강 여사가 떠벌이는 장점대로 처녀가 웬만하면 그냥 결정해버릴까도 생각했다.

그래서 지난 주말 그녀의 주선대로 S호텔 커피숍에서 처녀를 만나 보았다. 한마디로 삼삼할 만큼 아름다웠다. 다갈색으로 곱게 화장(化粧)된 쌍꺼풀 큰 눈동자, 긴 속눈썹과 또 한 그린 듯 잘 생긴 반달 같은 눈썹, 높지도 낮지도 아니한 콧날, 그리고 앵두 빛 립스틱의 입술은 초면부터 입 맞추고 싶을 만큼 선정적이었다.

몸매도 요철(凹凸)이 분명하고 키도 훤히 보여 외형적으로 그만하면 1등 신붓감이라 생각했다. 의상 또한 최신모드로 화려하고 하트형 방울의 귀고리와 루비목거리가 앙증스러웠다.

나는 사치스런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맞선 본다고 치장했으리라 백분 이해했다.

그런데, 강 여사의 소개와는 반대로 그녀의 매너는 의외로 영악스러웠다. 대체적으로 오만하고 작위(作爲)적이고 별로

조심스런 기색도 없이 한달 봉급이 얼마 정도며 기타 수입은 없느냐, 아파트와 승용차를 갖고 있느냐, 연애는 몇 번이나 해 보았느냐, 처녀성이나 동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위를 물어왔다.

소박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처녀를 노래처럼 불러대던 나는 처녀의 제반 행위가 지나치게 당돌하고 내 취향과는 심히 대조적이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그런 모든 것은 그녀의 세련되고 화사한 외형적 미모(美貌)속에 숨어들어 그 처녀가 사랑스럽기만 했다.

그녀가 좋다고 하면 정식으로 구혼(求婚)을 할 결심까지 했다.

맞선을 본 날로부터 사흘 후였다. 나는 마침 처녀가 사는 동네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그녀를 만나고 싶은 욕구로 연락도 없이 그녀의 집을 찾았다. 주소만으로 집을 찾는 데도 어렵지 않았다.

조금은 두근대는 가슴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집안에서 갑자기 컷전을 때리는 듯 억박지르는 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나왔다.

「누구세요?」

나는 짜증난 가정부의 목소리 이거나 화가 난 그녀의 어머니겠거니 생각했다.

「차 수미씨... 찾아왔는데요?」

「누구신데요?」

첫소리보다는 조금 낮아진 그러나 같은 억양의 소리가 또 터졌다.

「나와 보시면 안다고 좀 전해주시시오」

그러자 더 이상 응수가 없었다. 그러더니 곧 거칠게 현관 문 여닫히는 소리와 함께 짹짹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다.

「월부 화장품 아저씨예요?」

그러면서 대문이 벌럭 열리고 찌지는 소리의 주인공이 잔뜩 찌푸린 얼굴을 내밀었다.

「.....?」

「어머」

내 작은 눈이 화등잔만큼 벌어진 채 동시에 여자의 짧은 비명이 따랐다.

「어머머- 세상에. 어떤 일이에요? 전화도 안 하시고, 우리 집을 어, 어떻게...」

여자가 몹시 당황해 했다.

나는 반쯤 입술까지 벌리고 마주 선 여인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수세미처럼 얼크러진 머리와 누런 살빛, 면도로 하얗게 밀어버린 민 두덩이 눈썹과 굵게 성형(成形)되어 자연스럽지 못한 쌍꺼풀, 부풀어 오른 듯 뿌연 빛깔의 입술... 그 여인은 은은한 조명과 아름다운 멜로디가 흐르는 S호텔 커피숍에서 본 그 처녀임에 확실하면서, 그 날 그녀의 얼굴은 아니었다.

비유하건대, 그날의 처녀가 하늘에서 하강(下降)한 선녀라면 지금 문 안에서 쑥스러워하는 이 처녀는 참 너무 추(醜)한 지상의 한 여자일 뿐이었다.

미처 세수도 못 했던 것일까, 눈 안꺼로 눈곱까지 달고 민망스런 듯 선채 싹 웃기도 하는 처녀의 이빨 사이에는 고춧가루며, 푸른 채소 찌꺼기도 끼어있고, 때 절고 구겨지고 색

바랜 허드레옷에 납작한 슬리퍼로 폭삭 낮아진 키는 나를 참 너무 어이없게 했다.

「좀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큰길가 다방에서 기다리시겠어요? 곧 나갈게요」

나는 비로소 현실의 내 처지로 돌아와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 아닙니다. 곧 회사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마침 이 부근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댁이 이 근처라기에 들러 보았지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제가 박 선생님 퇴근 무렵쯤 회사로 전화 드리겠어요」

「아, 월요...예, 예...」

나는 쫓기듯 여자 앞을 돌아섰다.

놀란 가슴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누군가 말했단가. 여자는 천(千)의 얼굴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지만, 두 얼굴을 가진 사내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저렇듯 판이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한 여자를 나는 진작 본 일이 없었다.

쓰거운 미소를 얼굴 가득 흘렸다.

여자는 의상(衣裳)과 기묘한 화장술(化粧術)로 귀신이 곡할 만큼 변(?)한다는 사실을,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야 절감(切感)했다.

나는 내가 구하는 신붓감 조건인 소박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여자, 조항에다「맞선 볼 때만은 화장 안하기」조항을 하나 더 추가키로 했다. 물론 그 처녀를 더 만나지도 않았다.

〈김지연 /소설가〉



경상남도 진주에서 출생. 진주여고,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67년 「매일신문」신춘문예, 1968년 「현대문학」추천으로 등단했다. 저서로 '산 가시내', '산 울음', '돌바람', '야생의 숲', '흑색병동', '히포크라테스의 연가', '어머니의 고리' 등이 있고 역사소설 '논개'가 있다. 한국소설문학상, 남명문학상, 펜문학상, 월탄문학상, 한국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동덕여대 강사 및 경원대 겸임교수,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은평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소설가협회, 저작권협회 이사로 있다.

남은 명절 음식으로 만든

별미 요리

명절 음식을 장만하는데 재료비도 만만치 않지만, 남은 음식은 골칫거리다.
만점 주부라면 명절 음식을 알뜰하게 준비하는 것만큼 남은 음식을 깔끔하게 재활용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남은 명절음식을 재활용해 새로운 음식으로 만들어 보자.

송편 피자

재료> 송편, 달걀 흰
물 1개 분량, 소스(고추
장 1큰술, 토마토케첩 3
큰술, 다진 양파 3큰술,
물엿 약간), 나물·닭꼬치산
적 적당량씩, 미니 피망 2개, 블랙 올리브 3개, 모차렐라
치즈 30g

<만드는 방법>

- ① 식용유를 둘러 달걀 팬에 송편을 잘게 썰어 바닥에 깔고 달걀 흰 물을 끼얹는다.
- ② 달걀이 노릇하게 익으면 분량의 재료를 섞어 만든 소스를 펴 바른다.
- ③ ②에 나물과 닭꼬치산적을 잘게 다져서 올리고 모양을 살려 얇게 썬 피망과 블랙올리브로 장식한 후 모차렐라치즈를 솔솔 뿌리고



뚜껑을 덮어 익힌다.

생선전 카레라이스

재료> 남은 생선전 1
접시, 밥 3공기, 카레
가루 1/2컵, 당근 1/2
개, 감자 1개, 피망 1~5
개, 식용유 2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방법>

- ① 당근과 감자는 손질해 손톱만한 크기로 썰고, 피망은 속과 씨를 정리한 후 손톱만한 크기의 네모난 모양으로 썬다.
- ② 달걀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당근과 감자를 넣어 달달 볶다가 물을 자작하게 부어 속까지 무르도록 끓인다.
- ③ 카레가루를 그릇에 담고 물 2컵을 부어



명율이 없도록 잘 갠 후 ②에 넣어 고루 저어가며 끓인다. 끓이는 도중 카레가루가 뻑뻑해지면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적당한 농도로 맞춘다.

④ ③에 피망과 생선전을 넣어 한소끔 끓인 후 불에서 내리고 밥과 함께 낸다.

※ 식은 카레를 데울 때 우유나 요구르트를 넣으면 부드럽고 맛있어요!

김말이 잡채 튀김

재료> 남은 잡채(당면
50g, 쇠고기 100g,
당근 1/2개, 양파
1/2개, 실파 30g,
두부 1/2모, 김 2장,
튀김옷(밀가루 1/2컵, 녹말

가루 5큰술, 달걀 1개, 튀김기름 적당량), 두부 속 양념(깨
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소금 1작은술), 고기 양념(간장
1큰술, 설탕 1/2큰술, 참기름, 깨소금 약간씩)

<만드는 방법>

- ① 남은 잡채를 준비하거나 잡채를 만든다.
- ② 두부를 칼등으로 으개 물기를 제거하고 실파는 4cm길이를 썬다. 준비해 놓은 잡채와 두부, 실파를 넣고 깨소금과 참기름, 소금으로 다시 간을 맞춘다.
- ③ 김은 길이로 2등분해 양념한 재료를 넣고 돌돌 만든다.



④ 물에 달걀과 밀가루, 녹말가루를 넣어 부드럽게 섞어 튀김옷을 만든다.

⑤ ③을 튀김옷에 입혀 170도의 튀김기름에서 튀긴다.

나물 샐러드

재료> 도라지나물·고사리

나물·버섯볶음·숙주나

물·호박 또는 시금치

나물 등 남은 나물

50g씩, 쇠고기 100g,

고기양념(간장 1큰술, 설탕

탕·다진 마늘·참기름·통깨

1/2큰술씩), 가래떡·참기름·샐러드용 채소 적당량씩, 드레싱(두반장·식초·물 2큰술씩, 설탕 1½큰술, 레몬즙·다진 쪽파 1큰술씩, 굴소스 1/2큰술, 참기름 1작은술, 마늘 1/2작은술)

<만드는 방법>

- ① 쇠고기는 고기양념에 재웠다가 볶는다.
- ② 가래떡은 어슷썰기 등 먹기 편하게 썰어 팬에 살짝 구운 뒤 참기름을 바른다.
- ③ 샐러드용 채소를 손질해 씻어 놓는다.
- ④ 준비한 분량의 재료를 섞어 드레싱을 만든다.
- ⑤ 접시에 샐러드용 채소와 나물, 떡을 보기 좋게 담은 다음 드레싱을 뿌려 낸다.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사과’는 건강지킴이!

과일하면 ‘사과’가 연상될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사과는 폭 넓게 소비되는 과일 중 하나이다. 요즘 제철인 사과에는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칼슘 같은 영양소가 많아 우리 몸에 좋다.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사과의 효능을 알아보자.

◆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

그리스 신화에 ‘사과는 꿀맛이 나고 모든 병을 낫게 한다’는 기록이 있고, 미국에서는 사과를 ‘과일의 왕’으로 꼽는다.

유럽에서는 ‘하루에 사과를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많이 먹으면 미인이 된다’, ‘과수원집 딸이 예쁘다’라는 말과 함께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다’라는 속담도 있다.

이같이 사과와 관련한 속담이나 전해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것이 특히 많다. 그만큼 사과가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 과실로 불리는 사과는 코카서스 산맥의 광대한 지역이 원산지이고 현재 재배되

고 있는 사과의 기본종은 유럽 동남부 및 아시아 서부에 분포된 원생종 중에서 개량한 것이다.

◆ 껍질째 매일 먹으면 ‘암’ 예방 효과

최근에는 사과가 항암 식품으로 밝혀져 소비자들로부터 주가가 더욱 높아졌다.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을 비롯한 심장병·천식·콩 당뇨병 등의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이 중 ‘케르세틴’이라는 물질은 항암효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사과에는 항암효과로 밝혀진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케르세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주고 혈액 속의 과산화

지질 증가를 억제하여 노인성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도 예방해 준다.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혈액중의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암이나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충치도 예방해 준다.

◆ 장 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도 좋아

사과의 효능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게 변비를 예방한다는 사실이다. 사과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비가 심한 사람은 아침 식사 전에 사과 한 개씩만 꾸준히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사과의 칼륨 성분은 펙틴과 결합해 나트륨을 체외로 내보냄으로써 짠 음식 섭취가 원인인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어 비만인 사람이 2~3일간 사과만 먹으면 몸속의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시켜 체중이 현저히 주는 등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

◆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 있어

사과의 유기산은 소화를 돕고 철분의 흡수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몸 안의 피로 물질을 제거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로 지쳤을 때 먹으면 도움이 된다.

사과에 들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폐를

건강하게 해주므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도 사과가 좋다.

또한 사과는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다. 하루 한 끼 정도는 사과를 먹어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장기간 사과만 먹으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부족해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저지방 우유나 저지방 요구르트를 함께 먹어주는 게 좋다.

◆ 사과를 오래오래 맛있게 먹으려면...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를 먹으려면 온도차가 크지 않은 냉장고(4~5℃)에 보관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사과와 다른 과일을 함께 보관하며 사과에서 빠져나온 에틸렌 성분이 다른 과일을 쉽게 시들게 하거나 상하게 하므로 따로 넣거나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사과는 아침 공복시 먹는 것이 좋다. 농약 때문에 반드시 껍아 먹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꼭지부위와 아래 부위를 잘라내고 껍질까지 먹는 것이 좋다. 껍질 속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계의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껍질째 먹는 것이 오히려 몸에 좋다.

사과는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한 손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색깔이 밝고 진한 게 좋다. 또한 껍질이 얇고 꼭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모양이 반듯한 것이 최상품이다.

〈내용출처 : 농촌진흥청〉

프랜차이즈 창업,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곳곳에서 창업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반면, 관련 피해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프랜차이즈’ 란?

‘프랜차이즈(franchise)’는 사전적 의미로 특권, 특허, 독립판매권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어떠한 브랜드나 영업, 기술상의 노하우를 가진 사업자(가맹본사)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상호나 상표, 영업 전략 및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때 가맹점은 가맹본사로부터 상품과 서비스 등 경영노하우를 제공받아 사업을 전개하는 대가로 가맹본사에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등의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은?

사업경험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의 경우 특히, 해당분야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가맹본사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

어 사업 실패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지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창의성 부족 등으로 독립창업과 비교될 수 있으며 가맹본부 부실 등의 이유로 영업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

◆ 창업 전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지침은?

1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하라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범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사업현황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서’가 없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양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하라

본사를 확인하는 순간, 계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사장과 직원 서너명이 대충 모여 일하는 본사에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해 줄 리가 없다. 또한 제때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해 주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인 만큼 물류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하라

가맹점주로부터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긴지 얼마 안되는 가맹점과 계약한지 오래된 가맹점을 골고루 찾아보는 것도 지혜이다. 아울러, 점포를 내 놓고자 하는 가맹점주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빨리 점포를 정리하고자 하는 욕심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 폐업율을 확인하라

가맹본부의 재무제표상 수익률이 높다거나 재무상태가 좋다는 점만으로는 좋은 가맹본부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가맹점을 착취했는가에 대한 징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폐업율이다. 어느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해서 얼마나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나중에 할 후회를 막는 첩경이다.

5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은 대표이사 따로, 실제

운영자 따로인 경우가 많다. 또한 수시로 법인명을 바꾸거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가맹점 모집을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법인 설립은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6 분쟁조정협의회(<http://fmc.or.kr/>)에 물어보라

가맹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Tel. 3471-8067)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각종 분쟁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자기가 가입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와 그 결과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7 가맹계약서는 꼼꼼하게 살펴봐라

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가맹사업법에 의한 국가 자격사인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이런 가맹본부는 피하세요!

- ①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 ②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본부
- ③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본부
- ④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본부
- ⑤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본부
- ⑥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
- ⑦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

(자료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분유, 좀 더 위생적으로 먹이는 6가지 노하우

최근 신생아나 면역결핍 영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카자키균'이 또다시 분유에서 검출되었다.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엄마라면, 평소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분유를 좀 더 위생적으로 먹이는 노하우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분유를 고를 때 주의할 사항과 보관법은?

- 성장단계별 분유 선택하고, 개봉 3주 이내에 분유 사용해야

분유를 구입할 때는 먼저 분유제품에 표기된 대상월령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월령에 맞는 분유가 각기 다르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내 아기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분유를 구입해야 한다. 아기는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영양 요구량이 다르다. 아기의 월령에 맞지 않는 제품을 먹일 경우, 필요한 양양소의 결핍 혹은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

미숙아 또는 알레르기 등 기타 질환으로 인해 특수 분유를 먹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약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그에 적합한 분유를 선택하도록 한다.

더불어 분유를 구입할 때는 유통기간이 충분한지를 체크해 보고, 캔 외형에 녹이 슬어 있거나 어느 한 부분이 움푹 들어간 제품은 피

하도록 한다.

일단 구입한 분유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다. 한번 개봉한 제품은 3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단,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사항에 따르도록 한다.

2. 위생적인 젖병 세척과 젖병 소독법은?

- 따뜻한 물로 행구고, 끓는 물에 소독해야

젖병은 아기의 입과 직접적으로 닿는 물건인 만큼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아기가 사용한 젖병과 젖꼭지는 곧바로 씻도록 하고, 이때 브러시를 이용해 젖병 안에 남아 있는 분유를 깨끗이 제거하고 따뜻한 물로 여러 번 행군다.

소독할 때는 끓는 물을 이용한다. 커다란 냄비에 젖병과 젖꼭지 등이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붓고 충분히 끓여 소독한다. 제품의 제질 등

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 사용 안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소독 후 바로 사용하지 않을 젖병과 젖꼭지는 위생적으로 건조한 후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막기 위해 뚜껑을 꼭 닫은 상태로 보관한다.

3. 분유타기 전, 점검할 것들은?

- 날고기, 애완동물 만진 손은 세균 많아 씻어 줘야

분유를 타는 장소는 무엇보다 청결해야 한다. 또한 손은 반드시 비누를 사용하여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특히, 화장실을 다녀온 후,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난 후, 요리를 하면서 날고기나 생선 등을 만진 후, 흙이나 애완동물을 만진 후에는 엄마의 손에 의해 아기에게 세균을 옮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분유를 제대로 타려면?

- 먹는 물을 끓여서 식힌 후 조유 방법 숙지해 정확한 양의 분유를 넣어야

분유를 타는 물은 반드시 먹는 물을 끓여서 식힌 후(70℃ 이상) 사용한다.

70℃ 이상의 온도에서는 대부분의 미생물이 사멸되므로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균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분유를 탈 때에는 먼저 분유제품에 표기된 조유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한다.

물이 너무 적거나 분유 양이 너무 많아 조유

농도가 진하게 되면, 아기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수나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 농도가 너무 열으면 필요한 열량과 영양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양을 타도록 한다.

5. 분유 먹이기 직전에 지켜야 할 것들은?

- 먹기 직전에 분유 타고, 타 놓은 분유 오래 방치하지 말아야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기 전에 반드시 손목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아기가 먹기 적당한 온도인지 확인한다. 분유가 뜨거워 온도를 낮추어야 할 때에는 젖병 채로 찬물에 담그거나 흐르는 물을 이용해 빠른 시간 내에 식힌다.

분유는 되도록 아기가 먹기 직전에 타서 바로 먹이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미리 분유를 타 놓아야 하는 경우에는 5℃ 이하의 냉장고에서 24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지만, 되도록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냉장고에 보관한 분유를 아기에게 먹일 때에는 중탕으로 데워서 먹인다.

6. 남은 분유 처리법은?

- 미생물 증식 우려돼 남은 분유는 모두 버려야

아기가 먹고 남긴 분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될 수 있다. 따라서 아기가 먹다 남긴 것은 나중에 다시 먹이지 말고 바로 버린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생활 속 '라돈'의 위험성 줄이세요

환경부가 지난 14일 '실내 라돈 관리 종합대책'을 201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라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90년대부터 라돈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린 선진국에 비하면 최근 정부의 발표는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라돈'의 위험성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 '라돈'이란?

라돈은 우리 생활 주변 어디서나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이다. 라돈은 토양, 암석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238U)이 몇 단계 방사성 붕괴를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무취의 가스상 방사성 물질이다. 공기보다 9배정도 무겁기 때문에 지표 가까이 존재하고 인체에 쉽게 흡입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라돈'이 왜 위험한가?

흡입된 라돈은 여러 물질로 붕괴하면서 알파선이란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이것이 폐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지속적으로 폐조직이 손상되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는 건강위험성 측면에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폐암 발생 확률은 개인차가 너무 크고 특히 연령, 흡연 습관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가 대단히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다.

◆ '라돈'의 위험성을 줄이는 생활 습관은?

라돈이 실내 공간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건물주변의 토양, 암반, 지하수 등으로부터 건물의 갈라진 틈, 창틈, 마루바닥, 배관 등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 건축물을 지을 때 이용된 건축자재(모래·시멘트·벽돌·석고보드 등)에서 방출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실내 라돈 농도를 저감시키는 방법으로는 라돈의 주요 유입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 창틈 주위, 지하실 등의 벽이 갈라지는 경우 갈라진 틈새를 가정용 '흙 실리콘' 등을 이용해 라돈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지하수 사용을 자제하거나 라돈 방출을 줄일 수 있는 건축자재 등을 선택하는 방법 등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잦은 환기를 통해 실내공기 중 라돈 축적을 방지해야 한다. 하루 최소 30분은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키고 수시로 청소하는 것이 좋다. <자료참조 : 환경부>

「후불제」의 함정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소비자들의 심리상 허점들을 놓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잘못 알고 있거나 간과하기 쉬운 금융상식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는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후불제'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는 후회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교차한다. 이 때 느끼는 '두려움'은 물품구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제약요인이 되기도 한다.

보통의 경우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구매결정에 대한 '후회'의 기억이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사람들은 누구나 후회의 가능성을 줄이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불제의 경우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구매결정을 하는 데 신중할 수 있지만 후불제는 상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 후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어 물건구입을 쉽게 결정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일단 후불제로 구입하고 나면 처음 마음먹은 대로 반환을 잘 시도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판매업자도 환불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려놓아 환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반환하기도 쉽지 않다.

즉, 구매자가 배달된 상품의 반환을 위해 판매업체에 전화를 하면 상담자는 구매자에게 "그 물건이 반환할 정도로 무슨 큰 하자가 있느냐?" "며 반환해야만 하는 이유를 대도록 유도한다. 이런 식의 질문을 받으면 꼭 반환할 이유를 찾기도 힘들다. 그래서 결국 반환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구입결정에 따른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생각의 틀을 아예 바꿀 필요가 있다.

물건 구입을 결정할 때 스스로에게 "이 물건을 지금 꼭 사야 하나?" 되물으며 구입 이유를 찾는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반환 요청시 상담자가 "무슨 큰 하자가 있나요?"하는 식으로 되물을 경우에도 반품 기간 중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라고 당당하게 답하면서 만족하지도 않는 물건을 그냥 구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매년 이자를 나눠 받아도 절세가 돼요!

우리 생활 속에 늘 세금이 따라다닌다. '재테크의 기본은 세테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유행할 만큼 절세 노하우 습득은 재테크 전략의 지름길이다. 세금을 줄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보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씨는 상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율이 높은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방식의 예금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만기에 이자를 받으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 일 수 있을까?〉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해 연도와 둘째해 연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지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된다.

○○씨의 2006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5천만원이고, 연간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 종합소득세 = $[(50,000,000 - 4,600,000) \times 26\% - 4,500,000] = 7,304,000\text{원}$
- 원천징수세액 : 4,200,000원 $(30,000,000 \times 14\%)$
- 3년치 합계액 : 12,600,000원
- 총 부담세액 : 19,904,000원

2)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

- 종합소득세 = $[(50,000,000 + 50,000,000 - 4,600,000) \times 35\% - 11,700,000] = 21,690,000\text{원}$
- 원천징수세액 : 5,600,000원 $(40,000,000 \times 14\%)$
- 총 부담세액 : 27,290,000원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738만원 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만기에 지금 받는 이자가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눠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자료출처 : 국세청〉

이달의 읽을 만한 책

바리데기

황석영 / 창비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나 버림받은 바리공주는 사면들의 시조가 되었다. 그녀의 일대기가 『바리데기 신화』이다.

황석영은 이 신화에서 소재를 취하여 한 편의 장편을 써냈다. 현대의 바리데기는 북한 난민의 딸로 설정된다.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의 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국으로 피신했다가 컨테이너선을 타고 영국으로 밀항하는 바리와 밀항자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바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어둡게 물들이고 있는 현대의 사건들이 교직되듯이 짜여져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매력은 서사적 줄거리에 있지 않다. 작가가, 황천무가 바리데기 신화를 풀어내는 장면은 장중하고 아름답다. 흐름은 유연하고, 환상은 우주적이며 신비롭다.

마지막 선물

오진탁 / 세종서적



가까운 선생님께서 항암치료 후에 기막히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문득 문득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해 생각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라면 끌려가거나 처리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오진탁 교수의 『마지막 선물』은 그 죽음에 관한 책이다. "웰 다잉(Well-Dying), 죽음이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들"이라는 부제가 잘 어울린다.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행복한 죽음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죽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마지막 선물』은 이야기 한다. 죽음을 이해하면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일 힘이 생긴다고. 물론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는 삶이 아름다워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느냐 하는 문제의식이다. 죽음에 관한 동서고금의 이야기, 죽음의 목전에서 새로운 삶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도 흥미롭다.

염소 즐라테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 저, 정미우 역 / 내인생의책



지은이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는 폴란드 태생의 미국 작가로 198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랍비 집안에서 태어난 싱어는 랍비 신학교에서 유대식 전통 교육을 받았다. 그의 작품에는 그런 교육의 영향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염소 즐라테』

는 단편 선집으로 표제작인 〈염소 즐라테〉를 포함, 16편의 짧은 이야기가 들어있다.

〈염소 즐라테〉는 어린 시절, 개나 고양이 염소 등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대개 겪었을 법한 이야기로 사람과 동물 사이의 따뜻한 교류가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 다른 작품인 〈이야기꾼 내프탈리와 그의 말 세스〉는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작가의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오래 두고 가슴에 남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정식 계약, 출판된 책으로서 어린이들에게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 등 어른들에게도 권할 만한 책으로 믿어진다.



‘호반(湖畔)에 비친 가을’을 찾아서

유달리 더웠던 지난여름을 뒤로하고
산들거리는 가을바람을 벗하니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진다.
호반에 비치는 가을을 따라 호젓하고 넉넉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을 어떨까.

파로호- 강원도 양구군



파로호는 1941년 북한강 상류에 완공된 화천댐으로 인해 생겨난 인공호수이다. 평화의 댐을 지나온 북한강의 본류와 양구 수입천, 서천 등의 지류도 모두 이 호수로 흘러든다. 파로호는 한국전쟁 때에 국군 6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을 격퇴시켜 수장시킨 전적지로도 유명하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전공을 기리기 위해 ‘화천저수지’라는 원래 지명을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라는 뜻의 ‘파로호’로 바꿨다.

오늘날 파로호 일대의 산하는 때 묻지 않은 자연미를 자랑한다. 유역의 상당 부분이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이나 DMZ(비무장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로호의 상류에 자리 잡은 양구군은 청정 자연과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또한 분단조국의 아픔과 전쟁의 깊은 상흔이 또렷하게 남은 냉전의 현상이기도 하다.

옥정호- 전북 정읍시



물안개와 함께 주변의 산세가 아름다운 옥정호는 노령산맥 줄기사이 임실과 정읍 일대를 흐르며 때 묻지 않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여준다. 특히 산중턱에 있는 국사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호수 일대는 푸른 물빛과 기암괴석, 울울창창한 수목 등과 어우러져 수

목 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몽환적인 풍경으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자아낸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우수상에 뽑힐 정도로 옥정호의 드라이브 코스와 주변경관은 매우 뛰어나다. 정음의 기불만한 곳으로는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화를 면한 전라북도 내 유일의 서원인 무성서원, 상춘곡의 배경인 태산지역의 선비문화와 내력을 살펴볼 수 있는 태산 선비문화사료관 등이 있다. 임실 지역에는 치즈마을이 유명 한데 치즈 만들기, 초지썰매타기, 송아지 우유주기, 방앗간 체험 등 유익한 농촌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예당호- 충남 예산군



충남 예산에 자리한 예당저수지는 단일저수지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여의도의 3.7배나 되기에 바다로 착각될 정도이며 산과 물과 하늘을 고스란히 담은 풍광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다. 무한천 신양천 등이 흘러들어 먹이가 풍부하니 담수어 또한 많아 전국 최고의 낚시 명소로 소문난 지 오래, 이곳 붕어찜은 맛난 별미다.

예당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팔각정과 예당호 조각공원, 야영장, 야외공연장, 산책로를 고루 갖춘 예당관광지는 사랑받는 휴식처다. 또한 고즈넉한 수석사와 산채정식, 가풍이 흐르는 추사고택, 덕산 온천이 좋다. 대흥임존성에는 백제의 이야기가 흐르고, 역사책보다 재미있는 남연군묘와 가야사가 발길을 당기니 충남 예산이 더욱 정겨워진다.

지부소식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2개 시·군·구 지회

서울특별시지부

‘장애인명랑운동회’ 참가 및 봉사활동

강남구지회(회장: 박한옥)는 8월 16일 강남구 밀알 학교 강당에서 장애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장애인명랑운동회’에 회원 35명이 참가해 행사 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으로 한마음이 되었다.

또한 둘째, 넷째 목요일에는 회원 15명이 강남구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중식조리 및 배식, 뒷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부산광역시지부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캠페인

고유가시대를 맞아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시지부(회장: 김기묘)는 8월 12일 여성 센터 대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변천식 강사가 내년에 적용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 소개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현대백화점 앞에서 회원 45명이 가두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고효율제품의 소비 확대 등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유도했다.



식품 위생 안전 교육

8월 12일 여성 센터 대강당에서 에너지절약 교육 후 식품 위생 안전 교육을 연이어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부경대학교 조영제 교수

는 생선회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 등을 바로 알려주며 여름철 식중독의 위험성 등 위생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부산 우수상품 기획전 참가

8월 17일과 23일 롯데백화점 지하 1층, 홈플러스, GS 마트에서 부산시가 지역의 우수상품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업체와 지역우수업체 간 상생협력을 위해 개최한 ‘부산 우수상품 기획전’에 회원 30명이 참가해 상품 구매를 비롯해 향토 기업 및 지역우수상품 이용하기 시민



홍보에 앞장섰다.

대구광역시지부

엄마와 함께하는 체험마당

시지부(회장: 손기순)는 지난 8월 13일 회원 및 회원자녀 총 56명이 함께 경북 예천에서 열리고 있는 ‘곤충 바이오 엑스포’ 현장을 방문했다. 다양한 곤충들의 세계를 체험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곤충이 농업과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았다.

어린이 쌀사랑 체험

8월 17일 초등학교 44명과 회원 10명이 함께 고령군 덕곡면 예리를 방문해 어린이 쌀 사랑 체험을 했다. 벼 재배 과정 체험을 비롯해 벼 육묘 공장 방문으로 쌀의 중요성의 알게 되었고, 토마토 선별 체험 등



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광역시지부

엄마와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지부(회장: 한혜자)에서는 8월 14일~15일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 및 회원 90명이 강화 계명원에 모여 ‘엄마와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자녀와 엄마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더불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 농산물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최근 수입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반면, 우수 농산물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에 8월 20일

석바위 여성복지관에서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관련 교육을 실시해 특히,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제고 시간을 가져 우리 농산물 애용에 앞장섰다.



에너지 절약 관련 교육 및 캠페인

8월 20일 석바위 여성 복지관에서 농산물 관련 교육 이후 에너지 관련 교육이 이어졌다.

가정에서 무심코 쓰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석바위 사거리 일대에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며 에너지절약에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했다.



‘인천 사랑 우리가 지켜요’ 행사

8월 22일 회원 및 자녀 90여명이 함께 인천시 일대 명소 등을 다니며 ‘인천 사랑 우리가 지켜요’ 행사를 진행했다.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인천항 갑문 방문을 시작으로 차이나타운, 시화호 등을 방문하며 인천의 역사와 발전상을 통해 인천 사랑의 마음을 가졌고, 더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광주광역시지부

월례회의 및 지회장 회의 개최

시지부(회장: 박영희)에서는 지난 8월 3일 지부사무실에서 임원 및 운영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개최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고, 16일 강남회관에서는 시지부 5개 지

회장 및 부회장 7명이 모여 광주 여성지도자대회 행사시 나온 안전에 대해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장 견학

8월 24일 주부대학생 및 운영위원 등 40여명이 담양과 장성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장을 방문해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홍보 및 애용에 앞장서기로 했다.



대전광역시지부

쌀 사랑 현장 체험 학습

시지부(회장: 송병희)에서는 8월 7일 회원 및 자녀 85명과 함께 쌀 사랑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쌀 주요 생산지인 경기도 이천의 자채방아 마을을 방문했다.

좋은 쌀을 고르는 방법 및 쌀의

영양과 효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옛날 농기구의 변천사 등을 구경할 수 있었다.

또한 도정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인절미 만들기, 열전사 염색 등 선조들의 삶을 체험하면서 자연 사랑의 마음을 키웠다.



엄마와 함께 하는 도예 체험 교실

8월 7일 회원 및 자녀 120명이 광주시 계룡산 도예촌에 있는 이소도예를 방문했다. 흙을 고르고 반죽하는 과정부터 그릇으로 완성되는 전 과정을 엄마와 자녀가 함께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 문화의 멋과 얼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실무자 및 모니터 소비자교육

8월 28일 주부교실 2층 강당에서 대전·충남·충북 주부교실의 실무자 및 모니터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로서의 역할과 소비환경 변화로 다양해지는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 전달로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제1강의에는 배재대학교 법률상담소 조성남 전임상담원이 ‘임대차, 채권채무, 보험관련 법률’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한국소비자원 행정선 박사는 ‘최근의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이란 주제로 관련 소비자문제를 다루었다.

울산광역시지부

청소년 환경탐사대,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 하계캠프

시지부(회장: 박보봉)에서는 지난 8월 11일~12일 이틀간 강동초등학교에서 청소년 환경탐사대 및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 70명이 모여 하

계캠프를 실시했다.

자연을 벗 삼은 환경교육을 비롯해 화전 만들기, 에어로켓 만들기, 환경 골든벨 퀴즈대회,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보호 및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우리 축산물 애용 및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가두 캠페인

8월 16일 우리 축산물 애용 홍보 및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회원과 울산 KBS ‘쥬인 울산광역시’ 방송리포터 및 기자들 40여명이 북구 동사무소를 출발해 호계시장 주변까지 가두 캠페인을 전개해 주변 시장



상인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우리 농산물 및 에너지 절약 관련 교육

8월 21일 북구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했고, 이후 새로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인지도 제고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구매 촉진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새로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홍보를 위한 캠페인

8월 22일 회원 40명이 북구 호계동에 모여 새롭게 변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대한 홍보 및 고효율제품 사용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가정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했다.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의 정화 활동

8월 25일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 40여명이 천곡동 특수 어린이집을 방문해 조별로 주변청소, 식사제공, 말벗 되어주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정자 바닷가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해 환경오염 저감화에 일조했다.



경기도지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소비자 교육 실시

도지부(회장: 박명자)는 지난 8월

8일 회원 43명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 및 올바른 음식물 분리배출요령 등을 소개해 실생활에 이요도록 했다.



물가조사 및 모니터 교육

수원시지회(회장: 이현숙)는 매일 5일, 20일 모니터 20명이 수원시 4개구별로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명시지회(회장: 장대숙) 역시 둘째, 넷째, 수요일마다 광명시 전역에서 명예물가조사 요원 10명이 개인서비스요금 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용인시지회(회장: 장복희)는 8월



1일 소비자자발센터 회의실에서 회원 17명과 시청 기업지원과 담당 공무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모니터 교육을 실시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엄마 숨씨맛 김밥 봉사’ 외 봉사활동

안양시지회(회장: 성차순)에서는 지난 8월 1일 회장 및 회원 34명이 함께 평화교육원을 방문해 110명의 교육원생에게 김밥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고, 다과시간을 가지며 이웃사랑을 전했다.

평택시지회(회장: 박영미)는 8월 10일 회장 및 회원 15명이 평택남부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맛있는 점심을 정성스레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강원도지부

엄마와 함께하는 우리 축산물 바로 알기

도지부(회장: 김해광)에서는 8월 17일 춘천 새봄 유치원에서 원생과 부모 및 회원 92명을 대상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우리 축산물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해 잘못 알고 있는 축산물 상식을 제대로 알리는 등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교육

8월 28일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



터 1층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권원희 인제농협조합장을 강사로 초빙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신임 회장 임명

지난 9월 5일 그 동안 도지부를 이끌어 주셨던 김해광 회장이 자리를 물러나고, 신임 이금선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주부교실의 지도자 역할을 해 주시기로 했다.

또한 삼척시지회를 이끌어 주셨던 한미자 회장 후임으로 이은주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돼 ‘봉사하는 여성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춘천 막국수 축제’ 참가

춘천시지회(회장: 우미숙)는 8월 6일 회장 및 회원 10명이 삼천동 수변공원에서 개최된 ‘춘천 막국수 축제’에 참가해 춘천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인 막국수를 홍보하기 위해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자원봉사 활동 외 봉사활동

태백시지회(회장: 오영희) 회원 8

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임시관광 안내 봉사요원으로 참여해 8월 13일~18일까지 황지 연못 앞에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8월 16일 회원 5명이 태백 이동복지관에서 불우노인을 위한 생일잔치를 마련해 쓸쓸한 노년을 위로해 드렸다.



화천군지회(회장: 안원옥)는 8월 3일 회원 10명이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평화 페스티벌 유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해 자원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충청북도지부

식사제공 외 봉사활동

청주시지회(회장: 권지순)는 8월 2일 회원 8명이 충북 복지회관을 방문해 노인분들을 위해 점심제공 봉

사활동을 실시했다.



진천군지회(회장: 지미순)는 8월 13일 회원 6명이 말복을 맞이해 독거노인 5가정을 방문해 준비한 삼계탕을 대접하며 이웃의 정을 전했고, 27일에는 회원 8명이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분의 집을 방문해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괴산군지회(회장: 김문예)는 8월 25일 회원 5명이 괴산 공설 운동장에서 개최된 청결 고추 축제에 참가해 괴산 고추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추 홍보에 앞장섰다.

보은군지회(회장: 김흥순)는 8월 7일 회원 13명이 장애를 앓고 있는 2가정을 방문해 집안 청소를 비롯해 주변 정리를 하고 적립해 놓은 기금으로 가스 설치 및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입시 자녀를 위한 올바른 교육법’ 강의

영동군지회(회장: 임정선)는 8월 23일 난계 국악당에서 입시 자녀를 둔 회원 10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실시했다. 영동 대성학원의 이상록 강사는 수험생을 둔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교육법 등을 제시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을 돕고자 했다.



충청남도지부

‘생활 속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줄이기’ 전시회

도지부(회장: 조춘자)에서는 8월 23일 회원 40명이 공주시 큰 사거리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심각성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를 개최해 내분비계 장애물질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우리 농산물 애용하기 캠페인

도지부는 8월 30일 회장 및 회원 30명이 공주시 산성시장에서 우리 농산물 이용 캠페인을 전개했다. 소비자들의 농산물 애용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생산농가에 희망을 줄뿐만 아니라 농촌과 소비자의 상생·협력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국제결혼가정 방문교육

예산군지회(회장: 권영산)는 6월 ~12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주 2회, 예산군 읍내리와 신안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10가정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직 교사 2명과 회원 10명이 국제결혼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글교육, 요리교육 등을 실시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전라북도지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라벨 인지도 제고 교육 및 가두 캠페인

고유가 극복을 위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에 도지부(회장: 최원자)에서도 지난 8월 1일 하나대투증권 3층 대강당에서 주민 및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 인지도 제고 교육을 실시했고, 이후 전주 코아백화점 사거리를 출발해 오거리 광장까지 새롭게 변하게 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라벨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며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했다.



봉사활동

정읍시지회(회장: 이정립)는 지난 8월 3일 회원 10명이 임암면 소재 온누리 양로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시 노인들을 위한 목욕봉사를



비롯해 미용봉사 및 주변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완주군지회(회장: 최영숙)는 8월 5일 회원 5명이 봉동읍 장거리 일대 하천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 등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해 자연정화에 앞장섰다.



전라남도지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매니페스토 운동 교육

광양시지회(회장: 신행숙)에서는 지난 8월 10일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부 및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제 17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유권자 선거 참여 의식 확대 등을 위한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운동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기초질서 나부터 실천합시다’ 캠페인 및 봉사활동

8월 10일 광양 백운산에서 회원 50명이 광양경찰서, 112자건거 봉사대, 광양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백운산을 찾아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기수거하기, 불법주·정차 금지 및 풍기문란행위 금지 등 기초질서 지키기를 촉구하며 자연 사랑을 강조했다.

19일에는 회원 50명이 전남 드래곤즈 경기장에서 개최된 ‘FIFA 세계 청소년 월드컵대회’에 참여해 ‘시민 1인 1경기 이상 관람하기 운동’을 전개하며 홍보를 위한 무료 음료 제공 및 장내 청소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수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교육

영광군지회(회장: 정찬자)는 8월 14일 영광군 노인복지회관에서 지

역 주민 및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수산물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목포 수산물 관리원의 박점술 감시관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과 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수산물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환경 정화 및 자연보호 운동

장흥군지회(회장: 채은아)는 8월 15일 임원 및 회원 40명이 장흥 수문해수욕장에서 휴가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줍기 등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완도군지회(회장: 김공순)도 8월 1일과 8일 이틀간 회원 80명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휴가철 관광객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 운동을 펼치며 자연 보호에 앞장섰다.

경상북도지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

도지부(회장: 이인호)에서는 지난

8월 2일 회원 70명이 지부 앞을 출발해 한국전력, 예술회관 후문을 거쳐 동아백화점 앞까지 2008년부터 달라지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라벨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에너지절약제품 소비확대 등 에너지절약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경북농민대회행사 도우미 외 봉사활동

구미시지회(회장: 한로미)는 8월 2일 회원 3명이 낙동강변 체육공원에서 열린 경북농민대회행사에 참여해 수입농산물 원산지 식별 경진대회시 관광객들에게 원산지 식별 방법을 설명해주는 등 행사 진행 도우미 활동을 전개했다.

3일에는 회원 9명이 노인회관을 방문해 점심 배식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21일에는 회원 2명이 구미시청 내 식당에서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주먹밥

싸기' 봉사활동을 참여했다.

외국인 이주여성 돕기

상주시지회(회장: 육순단)는 8월 4일 회원 4명이 함창읍내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여성 대모결연을 맺은 2가정을 방문해 문화적 차이로 겪는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등 따뜻한 이웃의 정을 전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영천시지회(회장: 이길자)는 8월 21일 회원 26명이 완산동 재래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재래시장 이용이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편, 같은 날 회원5명이 을지훈련에 참여하는 소방서, 경찰서, 시청 직원들을 위해 떡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포항시지회(회장: 김귀련)는 8월 매주 월요일 회원 5명이 한조(총20명)가 되어 학산 사회복지관 내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반찬조리 및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양군지회(회장: 박정자)는 8월

25일~9월 2일까지 수비면 수하리에서 열린 영양군청 주최 반딧불 축제에 회원 18명이 참여해 매일 2명이 한조가 되어 음료수 무료 제공 및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주여성 한글 교육 및 봉사활동

군위군지회(회장: 김은주)는 8월 8일 서부면사무소에서 이주여성 6명에게 한글교육을 실시해 우리 문화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11일에는 회원 2명이 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전국 청소년 지도자 시상식에 참여해 행사 안내 및 차 대접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소년소녀 가장과 함께 엑스포 관람

철곡군지회(회장: 김해숙)는 8월 17일 회장 및 회원 1명이 지회와 자매결연 맺은 소년소녀가장 2명과 함께 예천 곤충엑스포 행사를 관람하며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위로 격려했다.



경상남도지부

에너지절약 캠페인

도지부(회장: 이인숙)에서는 8월 21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해 회원 30명이 도지부 사무실에서 합천초등학교까지 가두 캠페인을 전개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습관이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다.



환경정화 활동 및 봉사활동

창녕군지회(회장: 최규의)는 8월 14일 회원 10명이 영지면 연지못을 찾아가 쓰레기 줍기 등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고, 무료 의료봉사를 위해 방문한 원광대학교 의료봉사단을 위해 식사 대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거창군지회(회장: 이원숙)는 회원 20명이 7월 27일~8월 15일까지 거

창 수승대에서 개최된 거창 국제 연극제에 참여해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찻집'을 운영해 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우 이웃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농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

도지부(회장: 김영희)에서는 8월 22일 추석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의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5명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민들에게 농수산물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며 농수산물 구입시 원산지 표시 확인을 습관화해 줄 것과 우리 농수산물 애용에 동참해 줄 것을 유도했다.

제주자연문화유산 바로알기 체험

제주시지회(회장: 강순희)는 지난 8월 3일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과 용암동굴 오름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제주도민으로서 문화 유적지를 먼저 답사해 자긍심을 갖기 위해 회원 20명이 성산일출봉과 만장굴을 탐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새로운 가정문화적립을 위한 경제교육 실시

서귀포지회(회장: 강정자)는 지난 8월 7일 서귀포시 여성회관 강당에서 초등학교 3~5학년 학생과

엄마 30팀 총 60명이 참석해 새로운 가정문화적립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엄마와 함께 경제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엄마와 함께 신문을 활용한 교육(신문활용교육:NIE)을 통해 가족애 형성을 물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등 조기경제교육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난 8월 3일 회원 25명이 중문해수욕장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이동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했다.

*** 수상을 축하합니다 ***

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지회(회장: 곽한옥)가 지난 9월 3일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된 제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07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그동안 나눔과 봉사를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주부교실게시판

■ '제14회 주부대학동문회 운동회' 개최

본회에서는 주부대학동문들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운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음과 같이 운동회를 개최하오니 주부대학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7년 10월 2일(화) 10:30
- 장 소 : 과천 경마공원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하차)
- 참가비 : 1만 5천원

■ '제70기 주부대학' 및 '제10기 대학원' 수강생 모집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제69기 주부 대학생들이 9월 21일(금) 수료식을 갖고, 올 상반기를 이끌어 나갈 '제70기 주부대학' 개강식을 10월 8일(월) 본회 3층 강당에서 가집니다.

한편, 주부대학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제10기 주부대학원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주부대학 수료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대 상 : 주부대학 수료생
- 개 강 일 : 2007년 11월 1일(목) 10:30
- 교육기간 : 1년(주1회 수업 : 목요일)
- 모집기간 : 2007년 10월 말까지

- 접수 및 문의 : 본회 사무처
〈(02)2265-0637, 2265-3627~8〉

■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민원상담 피해구제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화 : (02)2273-2485 · 6300, (02)2266-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광진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
- 문 의 : (02)3409-1948~9